

부녀자 성폭행뒤 강도·살해

94.2.14

일당 3명 검거

서울 동부경찰서는 13일 밤늦게 귀가하는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최성열(21·무직·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5-305)씨 등 3명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

12월16일 밤 11시30분께 서울 성동구 성수2가동 284-1 신축공사장 앞길에서 귀가하던 유아무개(25·여·레스토랑 종업원)씨를 마구 때려 현금 5천원과 금반지 등 9만5천원어치의 금품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뒤 신축공사장으로 끌고가 실신한 유씨를 번갈아 성폭행하고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
이들은 또 지난달 27일 밤 10시

께 성동구 성수2가동 이아무개(29·여)씨 집에 들어가 이씨를 과도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안방 등을 뒤져 현금 4만5천원과 사진기 등 55만여원어치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.

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를 성폭행하면서 필름이 없는 사진기로 이씨의 알몸 사진을 찍는 척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.